

## VI. 北韓 動靜

### 1. 뉴욕 會談과 向後 南北 關係 展望

- (意義) 3자 설명회와 북·미 회담은 북한이 국제 대화 무대로의 참여와 '通美封南' 원칙의 변화를 시사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기를 초래함
- (背景)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불안 위기, 김정일 권력 승계의 원활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남북 및 북·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
- (主要 內容) 참여국의 입장차와 정치적 견해차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
  - (北韓 立場) 4자 회담 참여 자체보다는 이를 구실로 북·미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식량 원조, 경제 제재 해제, 테러국 지정 해체에 더 큰 관심
  - (美國 立場) 북·미 연락사무소 개설, 미군 유해 송환,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등의 현안 해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연착륙 유도
  - (南韓 立場) 남북한 주도의 조속한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과 남북 경협 및 신뢰 구축 등 광범위한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길 희망
- (向後 展望) 심각한 식량난과 체제 위기로 4자 회담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남북간 경협 및 대북 지원에 다소 활기가 예상됨
- (課題) 한·미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융통성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됨

북한의 3자 설명회 참가로 한반도 주변의 대화 분위기 조성

- (意義) 뉴욕에서 열린 3자 설명회(3월 5일)와 북·미 준고위급 회담(3월 7일)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·미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불어넣어 줌
  - 3자 설명회는 4자 회담 제의 1년만에 첫 만남으로,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남북한간 첫 공식적 대화 모임임
  - 북한의 국제 대화 무대 유도와 함께, 이 자리에서 북한이 '通美封南' 원칙 변화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
    - 通美封南이란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 당국과는 철저히 봉쇄·배제한다는 원칙임

뉴욕 회담 참여는 심각한 식량난과 대내외적인 체제 불안 위기 때문으로 평가됨

- (背景) 북한의 뉴욕 회담 참여는 심각한 경제난 타개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
  - 대내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불안 우려, 황장엽 망명 이후 주체 사상의 와해 및 이념적 기반 동요, 김정일 권력 승계의 원활한 분위기 조성 등에 목적

- 대외적으로는 탈냉전과 등소평 사후로 국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부족과 국제적 기반 상실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
- 3자 설명회 참여를 위한 한미간의 당근책이 주효함
  - 북한 참여는 2차례의 번복 이후 한·미간 1,600만 달러의 세계식량계획 지원을 약속한 이후에 이루어짐

**참여국의 입장차로 구체적 성과 없음**

북한은 4자 회담 자체보다 식량 원조와 북·미 관계 개선에 더 큰 관심

미국은 북·미 연락사무소 개설로 불확실한 북한 내부 정세 분석에 관심

남한은 남북한 주도의 4자 회담 개최에 주력

- (主要 內容) 참여국의 立場 差異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으나, 한·미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4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, 북·미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북·미 회담 정례화에 합의
- (北側 關心) 미국과의 교섭에 의한 평화 협정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, 4자 회담 수락 여부는 좀 더 연구하겠다고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
  - 북한의 정치적 의도는 4자 회담 참여 자체보다 이의 참여를 구실로 북·미 관계 개선과 식량 원조, 경제 제재 추가 해제, 테러국 지정 해제 등에 있음
  - 나아가 북·미 관계 개선을 통한 북·일 수교와 전후 배상금 협상을 노리고 있음
  - 북한은 외화난을 구실로 연락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양국간 공동 사업 제의함으로써 이를 경제 제재 완화와 연계하려고 함
- (美國 關心) 북·미 연락사무소 개설, 미군 유해 송환,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등의 현안 해결에 관심
  -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체제 불안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'연착륙 유도'에서 '붕괴 방지'로 전환될만큼 북한내 정확한 정세 판단을 위한 북·미 연락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
  - 미국은 식량 문제를 포괄적인 안보 문제로 거론
- (南韓 關心) 남북한 주도의 조속한 4자 회담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과 남북 경험 및 신뢰 구축 등 광범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함
  - 4자 회담 대표의 장관급 격상과 참여시에 대규모의

대북 지원 재개를 제안함(영농 기술, 경공업, 에너지, 의약품 및 가동 중단된 공장의 개가동 등 5개항)

북한 식량난과 한·미간 공조 유도로 4자 회담 참여 가능성 증대되었으나 낙관하기는 어려움

- (向後 展望) 심각한 식량난으로 4자 회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남북 관계가 다소 호전될 전망
  - (4者 會談) 식량난과 체제 불안 위기 가중, 서방국 원조 확대를 위한 북·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4자 회담 수락이 불가피하나, 낙관할 수는 없음
    - 북한의 식량 부족분(1996)은 약 300만 톤이며, 1일 배급량은 UN이 난민에게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양의 1/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함
    - '先식량 지원 後4자 회담'에서 '先지원 保證'의 조건부 참여 의사로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, 한·미 입장과의 상반된 견해로 본회담까지의 진전은 물론 본회담 과정에서도 본격적인 대화 진행에는 다소의 난관이 예상됨
  - (南北 關係) 경협 확대와 대북 지원에 다소 활기 예상
    - 4자 회담 수용 초기 단계에서 포괄적인 경협의 일환으로 식량을 제공될 수 있다는 뜻을 제안함으로써 경협 확대와 대북 지원에 다소 활기를 띠 것임
    - '先참여 後지원' 입장에서 초기 단계의 포괄적 경협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후퇴하였음

한·미간 긴밀한 공조 체제하에 정경 분리 및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 유지할 필요가 있음

- (課題) 북·미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 개선에 期待半 憂慮半의 二重的 성격이 있으므로, 한·미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융통성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됨
  - 북·미 회담과 이의 정례화는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,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내 미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
  - 정경 분리 원칙으로 민간 차원의 경협 활성화와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병행으로 일관성있고 융통성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됨 (홍순직)